

## 향기로운 예물

기업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헌교회)
주정, 주일, 절기 헌금(이름/헌금 예 홍길동주정, 홍길동성탄)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헌교회)

권오욱 김경상(김해숙) 김준구(이소은) 김창길(백경자) 김한나 박근제(송영숙) 박복례 박순자(이동수) 배세영(이경순) 서진화(최봉순) 오귀숙 오동호(강소영) 유은자 윤병호(양영욱) 윤예원 이근자 이미지 이상희 이영순 이월숙 이한철(박희영) 전순봉 조규래 최기훈(정계숙) 최선길(이미향) 최정희 허봉선 허정열(강영애) 홍유정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헌교회)

김명숙(공인석) 김춘구(이소은) 김지한(유소정) 김한나 박복례 박복순(김태준) 박부웅(최귀남) 박희영(이한철) 배세영(이경순) 오영순 유은자 윤병호(양영욱) 윤정호(유욱자) 이근자 이상희 이영순 이옥남 이윤욱 임만순 전순봉 최기훈(정계숙) 최선미 최성현 최정희 추재호 하세린 허봉선 홍유정
홍한표 에스더여전도회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헌교회)

이필레 공희라 김미경(신홍선) 김미희 김병울(이영숙) 김정연B 김종익(박애순) 김춘화 남해순 박부웅(최귀남) 박진숙(윤영준) 방복순 백성원(안지영) 서재희(김현구) 송다해 송백현(이태일) 송형기(김현숙) 엄영분(전세력) 오미숙 이경자(주경덕) 이미지 이상희 이홍문 장성자 장예준 전계자 전순봉 정영심 조규래 채영명 최성현 최정규(김미영) 최효자(김규찬) 한근순 허봉선 홍유정
루디아여전도회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윤희진 강은미 강민서 김민준 김아이린 김아이 김준구 무명 민족회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순천 박영식 박준홍 박복순 서로이 서로하 송백현 양영욱 양일석 윤예원 이강우 이경자 이노을 이미지 이상미 이상희 이소은 이승예 이아론 이영순 임윤정 정서연 정양학 주성탁 최대현 최봉순 최선미 최효자 하세린 홍유정
홍은민 홍준민

**📍 월정헌금**

최현석

## 주간 성경연구

<p><b>41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b></p>					
주 일	<p>호세아 10장 1절 ~ 15절</p>				
월요일	<p>호세아 11장 1절 ~ 11절</p>	목요일	<p>호세아 14장 1절 ~ 9절</p>		
화요일	<p>호세아 11장 12절 ~ 12장 14절</p>	금요일	<p>갈라디아서 1장 1절 ~ 10절</p>		
수요일	<p>호세아 13장 1절 ~ 16절</p>	토요일	<p>갈라디아서 1장 11절 ~ 24절</p>		

<b>원로장로</b>	이태일 정기성 유소춘		
<b>시무장로</b>	강영성 김병울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근제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선길		
<b>은퇴장로</b>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b>교역자</b>	<b>부 목 사</b>	윤희진	
	<b>전 도 사</b>	이필레	
	<b>교육전도사</b>	김선희 김윤주 최유경	
	<b>지 휘 자</b>	할렐루야 <span> </span> : 김한나 시 <span> </span> 온 <span> </span> :	
<b>찬 양 대</b>	<b>반 주 자</b>	<b>오르간</b>	심해운
		<b>피아노</b>	지애빈 김민지 김미희 심해운 최선미 이상희
		<b>클라리넷</b>	박진숙 이난수
		<b>플룻</b>	김민지
	<b>솔 리 스트</b>	이수경	
<b>선 교 사</b>	<b>파송선교사</b>	태 국 <span> </span> : 김정숙	이 집 트 <span> </span> : 김진숙
		수 리 남 <span> </span> : 안석렬 이성욱	A X 국 <span> </span> : 김혜월
		미 국 <span> </span> : 김다니엘	A X 국 <span> </span> : 이분옥
		미 국 <span> </span> : 최옥희	모잠 비크 <span> </span> : 홍두표 강순영
	<b>협력선교사</b>	태 국 <span> </span>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span> </span> : 박경환 이순연
		멕 시 코 <span> </span> : 김흥기	
<b>협력교회</b>	제주 대광장교회, 즐거운교회, 가나교회.		
<b>협력단체</b>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찰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4. 10. 06.

<div><div><span><span></span></span></div><span><b>제자의 도</b></span></div>	<p>제자의 도</p>	<p>설교: 이진우 목사</p>
<p>마가복음 10장 32-45절</p>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옆자리를 탐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신,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면서 큰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우선주의, 예수님 우선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더욱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 된 죄인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약한 자, 병든 자,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괴롭게 하는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핍박도, 오해도, 어려움도 견디고 인내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질서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여전히 세상의 질서와 상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 우리로 인한 잘못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능욕과 침 뱉음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의 욕심대로 예수님께 구할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자신이 바라는 것만을 구합니다. 야고보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제자의 도를 알고 행하게 됩니다.**
  - 예수님은 당신의 좌우편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잔과 세례를 그들이 받겠지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당신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 권세를 누리지만, 제자들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하지만, 제자들 중 큰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사랑의 도를 따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참된 제자의 도를 실천하며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영광의 길이 아닌 주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걷고, 예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만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을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진리를 몰라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헛된 욕망으로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는 대부분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며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여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구원과 상급만 받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는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고난에 동참함으로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기록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며,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큰 사랑을 베푸실 만큼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길 잃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의 과분한 사랑의 증거들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빛진 자로서 더욱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의 나라입니다. 영부러 천히 섬기시니 누구든 섬기지 않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예수의 제자 되어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삶의 현장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에 이루어 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50 - 41

2024. 10. 13.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로마서 15장 13절)

목표: 1. 진리 파수 2. 천국 일꾼 양성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p><b>동산의 샘</b> A garden fountain</p>	<p><b>생수의 우물</b> A well of living</p>	<p><b>흐르는 시내</b> Flowing streams (아가 4:15)</p>
<p><b>담 임 목 사</b> Senior Pastor</p>	<p><b>이 진 우</b> Yee, Jin Woo</p>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 이 지:** www.sunghyeon.or.kr

